

## 불편한 빈대 출현! 이렇게 대응하세요.

- 질병관리청, 관계부처간 회의를 통해 소관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조치
- 신속하고 안전하게 빈대를 제거하기 위해 「빈대 예방대응 정보집」 마련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최근 공동·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\*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안내·홍보하고, 필요 시 점검 관리하는 등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조치하였다.

\* 보건복지부, 교육부, 환경부, 문화체육관광부, 고용노동부

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,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.

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, 발견 시 신속·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, 「빈대 예방·대응 정보집\*」을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재·안내(10.25.)하였다.

\* 질병관리청 누리집 →알림·자료→홍보자료→교육자료→위생해충 분류군 정보집(빈대)

또한, 11월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,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·홍보할 계획이다.

향후,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며, 해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구제 업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.

## <빈대 대응 방안>

1. 빈대에 물렸다면,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.
  - 사람마다 반응 시간(잠복기 최대 10일)이 다를 수 있다.
2. 집 또는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한다.
  - (직접확인)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, 소파, 책장,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본다.
  - (흔적)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찾는다.
  - (냄새)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에서 찾는다.
3.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여야 효과적이다.
  - (물리적 방제)
    - ① 스팀 고열을 이용하여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한다.
    - ②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침대, 매트리스, 소파, 가구 등 빈대에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고, 진공 흡입물은 봉투에 밀봉하여 폐기한다.
    - ③ 오염된 직물(의류, 커튼, 침대커버 등)은 건조기를 이용하여 소독한다.
  - (화학적 방제) 빈대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한다. (매트리스, 침대 라인 등 직접 접촉 가능한 곳 제외)
    - \* 가열 연막 또는 훈증 이용 시, 숨어 있던 빈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에 주의 필요
  - 빈대에 오염된 장소가 공동·숙박시설일 경우, 동시에 방제한다.
  - 방제 후, 빈대가 발견되었던 곳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, 빈대가 발견되면 추가 방제한다.
    - \* 서식처 주변 및 깊숙한 곳에 있어, 방제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수 있음
    - \* 알이 부화되는 시기를 고려하여, 7~14일 후에 서식처 주변을 재확인해야 함
4.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,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.
  - 만약 폐기할 경우, 반드시 방제 후 폐기\*하여야 한다.
    - \* 방제 없이 폐기 시,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
5. 여행 중 빈대에 노출 경험이 있으면, 여행용품에 대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.
  - \* 밀봉하여 장시간 보관하거나,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 등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,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”고 설명하며,

“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,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또한 "빈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하며,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"을 당부하였다.

- <붙임> 1. 빈대(Bed Bug)의 생태적 특성  
 2. 빈대(Bed Bug) 발견 방법  
 3. 빈대(Bed Bug) 발견 시 방제 방법  
 4. 빈대(Bed Bug) 관련 질의응답(Q&A)

담당 부서 <총괄>	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희일 (043-719-8560)
		담당자	연구관	주정원 (043-719-8521)
			연구사	조선란 (043-719-8563)
담당 부서 <협조>	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종하 (043-719-920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욱 (043-719-9218)
			연구원	이강현 (043-719-9212)

# 붙임 1 빈대(Bed Bug)의 생태적 특성

## □ 매개 감염병 등 인체 영향

- 현재까지 질병을 매개한 기록은 없으나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이차적 피부감염 생기기도 함
- 드물게 여러마리에 의해서 동시에 노출시 Anaphylaxis가 일어나서 고열 및 염증반응을 일으킴
- 흡혈욕구가 강하고, 주로 야간에 흡혈하는 습성으로 수면방해



(출처: Tackling bed bugs; A starter guide for local governments)

## □ 형태적 특징

- 성충은 약 5~6 mm,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난형이며 진한 갈색을 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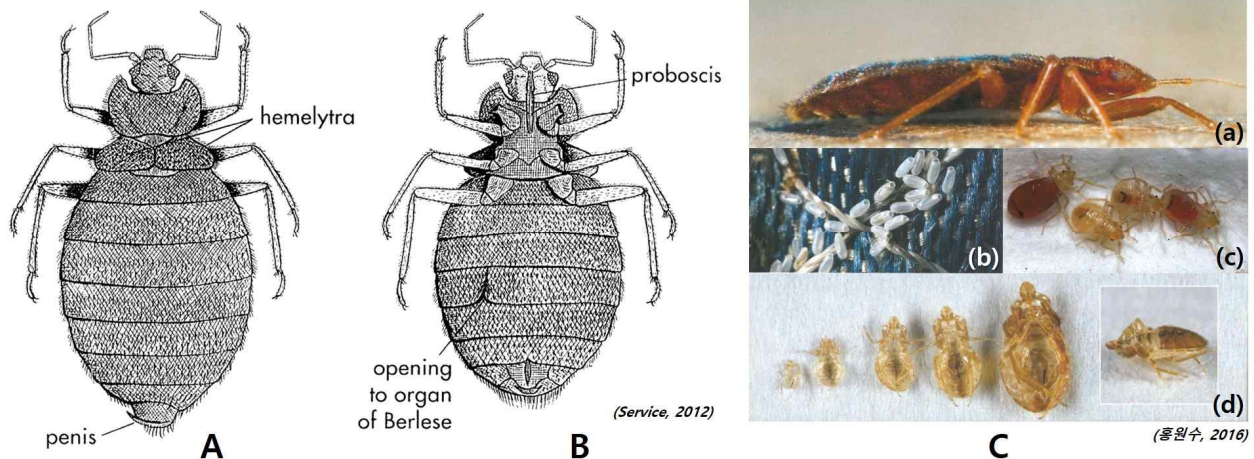


그림 8-1. 빈대의 형태. (A)수컷(등면); (B)암컷(배면). (C)발육단계별 형태. (a)성충; (b)알; (c)1령 약충; (d)단계별 탈피각

□ 생활사 및 습성

- 불완전변태의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알에서 약충 5령기를 거쳐 성충이 됨
- 약충은 5회 탈피(molt)하며 각 령 마다 최소한 1회의 흡혈이 필요
- 암수 모두 1주일에 1~2회 흡혈하며, 10분간 몸무게의 2.5 ~ 6배 흡혈
- 성충의 수명은 온도에 영향을 받음
  - \* 18~20℃에서 9~18개월; 27℃, 15주; 34℃, 10주
- 하루 2~5개의 알을 2~3일 간격으로 낳아 일생동안 약 200개 산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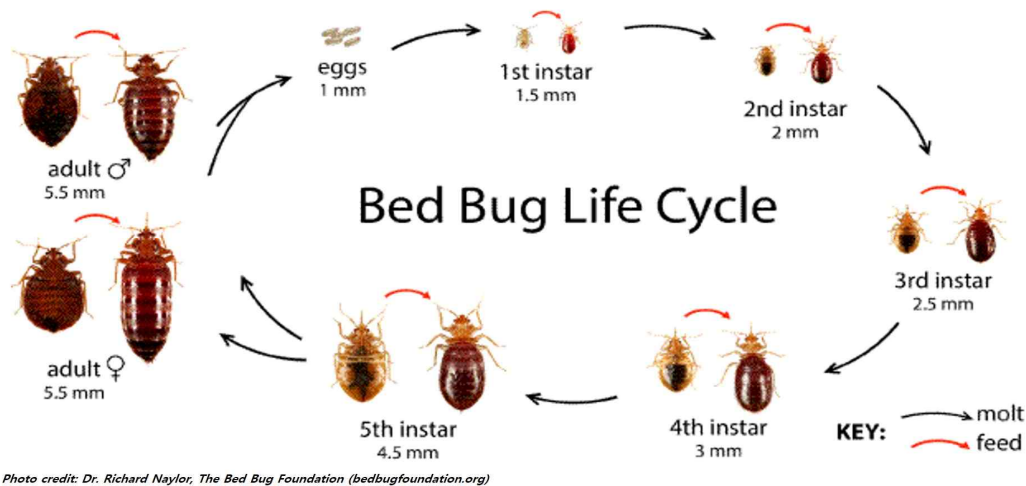


그림 1-9. 빈대의 생활사

- 성충과 약충은 습성이 유사하고, 주간에는 가구나 침실 벽의 틈 혹은 벽지 틈에 끼어들어 숨어 있다가 야간에 흡혈활동을 하며 저녁보다는 이른 새벽에 더 활발히 활동함



(출처: Dini M. Miller, Ph.D., Department of Entomology, Virginia Tech)

## 붙임 2 빈대(Bed Bug) 발견 방법

### □ 빈대 발견의 개념

- 빈대는 주로 야간에 수면 중인 사람을 흡혈하기 때문에 침대 등 사람이 잠을 자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주로 서식
- 흡혈할 때만 잠시 나타나고 흡혈 후 어두운 곳에 숨음
  - \* 섬유질, 목재, 종이로 된 틈새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, 소파, 책장 또는 이불이나 침구류 등에 숨어 있음



<매트리스 이음새에서 발견된 빈대>

(출처: Dini M. Miller, Ph.D., Department of Entomology, Virginia Tech)



<매트리스에서 발견된 빈대>

(<https://news.sky.com/story/bed-bugs-eurostar-on-alert-as-paris-grapples-with-infestation-12977030>)

### □ 주간 발견 방법

- (물린자국) 모기 물린 것과 비슷하나, 주로 옷에 가려지지 않은 팔, 손, 목, 다리 등 노출 부위를 물며, 혈관을 잘 찾지 못해서 2~3곳을 연달아 물어 일렬이나 원형으로 자국이 생김



<빈대에 물린 자국>

(출처: Dini M. Miller, Ph.D., Department of Entomology, Virginia Tech)



<빈대에 물린 자국>

(DOI: <http://dx.doi.org/10.1590/abd1806-4841.20153214>)

○ (직접확인) 빈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

- 성충은 적갈색에 납작하며 4~7 mm 정도, 약충은 성충에 비해 더 작고 옅은 색깔임



<빈대 모습>



<빈대가 흡혈한 모습>

(출처: Dini M. Miller, Ph.D., Department of Entomology, Virginia Tech)

○ (흔적) 깊이 숨어 있는 빈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들,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찾는 것이 효율적

- \* 침대의 매트리스 패드를 들어 올리고 침대 모서리나 커버의 주름진 곳을 확인하여 적갈색의 빈대 배설물이나 빈대가 눌러져 죽으면서 묻힌 혈흔 또는 알껍질(난각)이나 탈피 허물 등을 찾을 수 있음



<빈대의 부산물 및 배설물에 의한 흔적>

(출처: Dini M. Miller, Ph.D., Department of Entomology, Virginia Tech)

○ (냄새)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 같기도한 냄새를 풍김으로 빈대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

□ 야간 발견 방법

- 빈대는 빛을 싫어하므로 방의 불을 켜면 숨어 버림
- 캄캄한 방에 조용히 들어가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숨기 위해 움직이는 빈대를 찾을 수 있음
- \* 특히 침대 모서리나 매트리스 사이 집중 확인

## 붙임 3 빈대(Bed Bug) 발견 시 방제 방법

### □ 빈대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

#### ○ 빈대 확인 후 실시 요령

- 오염된 매트리스,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 판단
  - \* 모든 빈대가 제거될 때까지 커버 유지
- 오염된 물품 폐기 시, 반드시 방제 후 폐기
  - \* 방제 없이 폐기 시,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
- 방제 후, 정기적으로 서식장소에서 빈대 유무 확인
  - \* 서식처 주변 및 깊숙한 곳에 있어, 방제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수 있음
  - \* 알이 부화되는 시기를 고려하여, 7~14일 후에 서식처 주변을 재확인해야 함
- 다가구, 숙박업소 등 오염장소 주변으로 동시에 방제 진행

### □ 물리적 방제

- 스팀 고열을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분사하여 방제
  - 카페트는 살충제 처리 전 스팀 청소
  - 벽에 맞닿아 있는 카페트(특히, 침대의 머리맡 부분)는 반드시 방제
- 청소기의 흡입력을 이용하여 침대(box spring 내부 필수), 매트리스, 소파, 가구, 벽지, 책 등 오염된 모든 장소 주변의 알, 자충, 성충을 포집하여 제거
  - 진공청소 끝난 후에는 내용물을 봉투에 밀봉하여 버린다.
- 오염 직물(의류, 커튼, 침대커버 등)은 50~60°C 건조기에 약 30분 이상 처리하여 방제

### □ 화학적 방제

- 빈대 서식처 확인 후 살충제(환경부 허가제품) 처리(제외, 매트리스, 침대 라인)
- 서식처 틈새에 살충제\*를 잔류분무 처리
  - \* 제품 라벨에 표기된 용법·용량을 사용 권장
- 가열 연막 또는 훈증(일명 연막탄)를 이용하여 빈대 방제 자제
  - 빈대에 효과가 적으며, 숨어 있던 빈대가 약제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

### □ 빈대를 예방하려면

- 숙박업소 방문 즉시, 빈대가 숨어 있는 공간을 확인
  - 침대 매트리스, 머리판(headboard, 벽에 밀착된 경우 뒷면 확인), 카페트, 침구류, 소파, 가구 등 틈새(이음새 포함)
- 빈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방 바닥 또는 침대에 짐 보관 지양
- 여행 중 빈대에 경험이 있으면,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
  - \* 밀봉하여 장시간 보관하거나,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 등



**Q1. 빈대는 왜 흡혈을 하나요?**

- 빈대는 불완전변태 곤충이며, 발육단계는 알, 약충(1령~5령), 성충입니다.
- 약충은 다음 령기로 발육할 때마다 최소 1회씩 흡혈해야 합니다.
- 성충은 주 1~2회 흡혈하며, 암컷은 산란을 위해 흡혈합니다.

**Q2. 빈대가 매개하는 질병은 무엇이 있나요?**

- 현재까지 질병을 매개한 기록은 없으나,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이차적 피부감염이 생기기도 합니다.

**Q3. 빈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?**

- 빈대는 야간에 수면 중인 사람을 흡혈하기 때문에 침대 등 사람이 잠을 자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주로 서식합니다.
- 빈대는 섬유질, 목재, 종이로 된 틈새에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, 침대 매트리스, 프레임, 소파, 책장, 침구류에 숨어 있습니다.
- 빈대는 흡혈할 때만 잠시 나타났다가 흡혈한 후 어두운 곳으로 다시 숨기 때문에, 빈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 빈대의 배설물이나 탈피각 등을 흔적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.

**Q4. 빈대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?**

- 일반적으로 빈대에 물린 부위는 사람에 따라 다르나, 대부분 1주일 정도 경과하면, 가려움증 등이 해소됩니다.
- 물린 부위 조치가 필요한 경우,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.

**Q5. 빈대 예방, 조치, 방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**

- (예방) 숙박업소 등 공동시설 방문 즉시, 빈대가 숨어 있는 공간 확인하고, 빈대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바닥 또는 침대에 짐을 보관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.
  - 또한, 여행 중 빈대에 노출 경험이 있으면,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방제\*를 통해 새로운 곳으로 유입·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  - \* 밀봉하여 장시간 보관하거나,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 등)
- (방제) 물리적(스팀청소, 청소기, 건조기 등) 방제와 화학적(살충제) 방제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